

라우어 “우승 청부사’ 별명에 맞게 KIA 우승 돕겠다”

오늘 불펜피칭 예고…“팬들 응원 모습에 빨리 뛰고 싶어” “몸 상태 지금은 좋아…투구수 100개 이상도 문제 없어”

KBO 마운드에 곧 에릭 라우어쇼가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29·Eric Lauer·좌투우타·사진)가 챔피언스필드를 첫선을 보였다.

라우어는 이날 캐치볼을 하면서 새 리그 데뷔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선수단과의 상견례, 프로필 촬영 등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 라우어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라우어는 KIA가 계약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KIA Tigers'를 써놓으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만큼 새로운 팀에서의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7일 취재진을 만난 라우어는 “(공식 발표 전이라) 인스타그램에 써놓은 글을 내려야 하나 생각도 했었는데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좋았다. 축하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정말 즐겁다. 다른 문화가 있는 곳에 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기쁘다. KIA 팬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다며 “어제 야구장에서 경기를 봤다. 팬들의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열정적인 응원이 흥미로웠다. 팀이 이기는 모습을 봐서 더 좋았다. 경기와 응원을 보니까 더 빨리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웃었다.

마음은 그라운드에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KIA는 7일 라우어의 불펜피칭을 예고했지만 이날 캐치볼로 훈련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시차 적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우어의 컨디션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할 생각이다.

8일 불펜 피칭을 앞둔 라우어는 “일한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자신의 데뷔전을 기대했다.

KIA와 팬들은 기대감으로 라우어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몸상태’가 가장 큰 관심사다. 라우어는 KIA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겠다는 생각이다.

라우어는 “모든 게 좋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좋은 상태를 이어가려고 한다”며 “부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고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마이내리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증명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닝도 문제없다. 올해 부상 이후라 팀에서 투구수 제한을 두고 하면서 처음에는 80-90구에 맞춰 던졌다. 나는 100구 정도 던지는 것을 선호한다.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지겠다. 마운드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라우어의 한국행은 KBO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빅리그 32승 투수의 KIA행에는 ‘우승’이라는 배경도 있었다.

라우어는 “KIA는 우승을 앞두고 있는 팀이다. 이곳에서 잘 던지는 것도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승을 노리는 팀에 왔다는 자체가 흥분된다.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이런 부담은 좋은 것이다. 팀이 우승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우승청부사’라는 별명이 좋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 별명에 맞게 노력하겠다. 강속구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장점이다. 특히 빠른 직구를 높게 던질 수 있는 게 내 강점이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점도 자신 있다.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또 부상...타점 1위 '해결사' 최형우 이탈



우측 내복사근 부상

KIA '해결사' 최형우(사진)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다.

KIA 타이거즈가 7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앞서 최형우를 엔트리에서 뺐다. 최형우는 우측 내복사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다.

최형우는 지난 6일 KT와의 홈경기에서 8회 타격을 하다가 이창진과 교체됐다.

무사 1루에서 김민수의 초구 볼을 지켜본 최형우는 2구째 파울을 기록한 뒤 9구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덕아웃으로 물러났다.

이후 선한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내복사근 손상이 확인됐다.

이병호 감독은 “앞서 한화전에서 데드볼을 맞았는데 스윙을 하면서 악화가 된 것 같다”며 “2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검진을 하고 다음 스케줄을 잡아야 할 것 같다”며 “큰 부상은 아니지만 옆구리 부위라서 다음 검진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날짜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3-4주 정도 공백을 예상했다.

최형우가 빠진 자리는 이우성이 채운다. 이날 KIA는 부상으로 재할을 해왔던 이우성을 엔트리에 재등록했다.

이우성은 지난 6월 27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우측 햄스트링 힘줄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었다.

지난 7월 27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을 재개한 이우성은 8월 4일 KT전, 8월 6일 NC전을 통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우성은 이날 6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복귀전을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리 금빛 셔틀콕 목포서 이어간다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27일 개막

배드민턴 월드랭킹 최상위 선수들이 왕좌를 두고 목포에서 격돌한다.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오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목포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3개국 선수단 55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한 코리아오픈은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500 등급의 대회로, 총 상금 42만 달러(한화 약 5억8000만원)가 걸려 있다.

이번 대회는 남녀 단식·남녀 복식·혼합 복식 총 5개 부문, 예선 및 본선 경기와 준결승, 결승전으로 진행된다.

남녀 단식 우승자는 3만1500달러(약 4316만 원), 남녀·혼합 복식 우승팀은 3만3180달러(약 4546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인 SPOTV를 통해 세계 20여개국에 중계될 예정이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예선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본선 경기가 치러지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좌석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23년 여수 코리아오픈에서는 최근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이 여자 단식 우승자 됐다. 남자 단식 우승은 덴마크의 앤드루 안톤센이 차지했다.

남자 복식은 사트웍스아리스 란키레다-차라그 세티(인도)조와 여자 복식은 전정찬-가이판(중국)조, 혼합 복식에서는 풍영자-황동평(중국)조가 정상에 올랐다.

/서민경 기자 minky@



양민혁 'K리그 최초' 4회 연속 영플레이어상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상

‘초신성’ 강원FC 양민혁(18·사진)의 적수가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월 K리그 ‘세븐셀렉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2006년생 강원 공격수 양민혁을 선정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연속 이어진 수상이다.

‘영플레이어상’은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1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에서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 조건을 충족한 선수 중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에 출장한 선수가 후보가 된다.

수상자는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상을 양민혁이 독식하고 있다.

양민혁은 7월 진행된 강원 FC의 5경기에 모두 나서 24라운드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면서 라운

드 MVP에 선정됐다. 25라운드 전북전에서는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면서 황재원(대구), 홍윤상(포항) 등을 제치고 7월에도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준프로 신인으로 K리그에 데뷔한 양민혁은 구단 최연소 기록 등을 갈아치우며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 계약을 맺었다. 급이 다른 실력을 과시한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의 입단 계약까지 완료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유럽무대에서 뛰는다.

양민혁은 앞서 ‘쿠플영플’에 선정되면서 지난달 31일 열린 토트넘과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 경기에도 출전해, 미리 눈도장을 찍었다.

양민혁은 오는 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앞서 영플레이어상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한편 프로 데뷔골을 2라운드 광주원정에서 기록했던 양민혁은 올 시즌 8골 4도움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레슬링, 대통령기 대회 ‘메달 잔치’

금 7·은 5·동 13개 획득 여자일반부 자유형 종합우승도

전남 레슬링 선수단이 최근 강원 양구문화체육센터에 끝난 ‘제50회 대통령기 전국사·도대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며 메달 잔치를 벌였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는 천미란(F50kg), 권영진(F59kg·이상 삼성생명)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간판스타’ 장은실(전남도체육회, F68kg)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여자일반부 자유형 종합우승까지 차지했다.

장은실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전남도체육회 박근철 감독은 최우수지도상을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자유형과 그레코로만 형에서 금 4, 은 3, 동 7개를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고등부 자유형 종합우승도 차지했다.

전남체고 채진호(1년·F65kg), 이윤수(3년·F

74kg), 김동준(2년·G82kg), 이승현(2년·G55kg)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윤수는 G77kg에서 동메달도 더했다.

김예찬·이다훈(이상 전남체고 1년), 박민준(학대리고 2년)은 각각 그레코로만형에서 은메달 1개, 자유형에서 동메달 1개씩을 획득했다.

김예찬은 G82kg과 F79kg에서, 이다훈은 G97kg과 F92kg에서, 박민준은 G130kg과 F125kg에서 각각 은, 동 1개씩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허현찬(3년·F97kg), 박태윤(1년·F97kg), 송현승(2년·G60kg)이 동메달을 더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이재성(F92kg)이 은메달, 장동혁(F97kg)과 전성민(G130kg·이상 전남도체육회)이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또, 중등부에서 전남체중 선수단이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에서 메달 6개(은 1·동 5)를 따내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했다.

전남체중 이현군(3년)이 G60kg에서 은메달, F60kg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오승우(3년·F60kg), 박수환(3년·F97kg), 김정민(2년·F71kg·G71kg)이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